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1년 2월 제252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추양첨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박대용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충남기계공고를 매력있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이종업 동문(14회) 모교 교장 부임 학교발전 청사진 펼쳐

우리 동문들이 오랫동안 꿈꾸고 바라왔던 모교 출신 교장이 마침내 탄생됐다. 이종업 동문(기계과 14회)이 올 2월 대전시교육청 정기인사(3월 1일자)에서 모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아 3월부터 근무하게 되었다. 1978년 까까머리의 모교 고등학생(당시 기계과 3학년 8반)은 그로부터 43년이 지나 모교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는 인간 스토리를 만들었다.

이종업(李鍾業) 교장은 1960년 3월 대전 중촌동에서 출생하여 대전 목동초, 대전동산중을 거쳐 충남기계공업고 기계과(14회)를 졸업하고 충남대 공업교육대 기계교육공학과에 진학하여 특성화고교 교사로 교육일선에 투신했다. 이후 투철한 교육관으로 충남대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인품과 실력을 갖춘 교사로 거듭나려고 노력했다.

교직 경력은 단양공고에 처음 부임한 후 학산중, 청산고, 청주공고, 충남기계공업고를 거쳐 대전지족고, 대전관저중에서 교사를 지내고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장학관(중등교육과장), 대전시교육청 장학사(장학, 인사), 장학관(직업교육)의 현장 행정 실무를 쌓은 후 대전공고 교장에 부임했다. 대전공고 부임 후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대전공고를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우수학교로 선정시키는 등의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뤄 학부모와 학교 주변 주민의 칭송을 받아 이임하면서 동네주민들의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이 교장은 대전시교육청 학교공간혁신 추진위원과 대전시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을 맡아 학생들의 인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모교 동문회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동참하여 14회 동문들은 물론 현재 충남기계공업고 총동문회 감사를 맡아 동문들의 신망이 두텁다.

개교이래 처음으로 모교 출신 교장에 이종업 동문이 부임하자 총동문회에서 정문에 현수막을 걸어 축하했다.

이 종 업

이종업 교장은 "교육계의 마지막을 모교에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니 설레인다"며 "올 가을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모교에서 개최하는 만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국적인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기피 현상으로 큰 위기인 현상에서 직업계고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력 배출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저버리고 취업이 불분명한 취미와 흥미 위주의 가사계열(네일아트, 바리스타, 제과제빵, 조리, 반려동물 등)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국가적으로도 충남기계공업고의 변화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이 같은 위기를 학생을 위하고 교직원들을 도와 극복해 나가겠다"며 "충기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했다. 무엇보다 그 주축에 3만4천 동문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장은 우리 후배들을 4차 산업시대의 핵심역량과 인성을 갖춘 기술인재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산업체, 모교 동문이 똘똘 뭉쳐 충남기계공고를 매력 있는 학교로 변화시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모교 졸업생들이 양질의 직업(고임금, 좋은 환경, 장래성)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가 믿음직스럽다.

특성화고교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가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교장의 그동안 쌓아온 능력이 십분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제87차 총동문이사회 서면으로 개최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올해 2월에 개최 예정인 제87차 총동문이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대면 개최하지 못함에 따라 서면으로 2월 중에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3월로 연기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중으로 이사 및 임원, 각 모임의 단체장님들께 충기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밴드에 이사회 자료 올리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동문들께서는 총동문회사무실(전화 252-5656)로 3월 26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박 대 용

"난국 슬기롭게 헤쳐 나가 모교발전에 도움이 되자"

충기총동문회 87차이사회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서면 개최

충기총동문회 87차 이사회가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가 여전하여 법적으로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총동문회는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자료를 만들어 3월 중으로 총동문회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 총동문회 이사 및 임원, 각 모임의 단체장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지난해 체육대회 등 공적인 행사도 못 하고 경제도 어려워 동문들의 성금도 줄어든 상황에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올해 모교에서는 올가을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특히 침체된 특성화고교의 위기 속에서 모교 동문 최초로 이종업 교장이 3월에 부임함에 따라 모교 발전의 전기를 맞이해야 할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대용 총동문회장은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은데도 87차 이사회를 서면으로 열어야 하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며 "아무쪼록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동문회의 단합과 모교의 발전에 보탬이 되자"고 당부했다. 이번 87차 이사회에서는 총동문회 활동사항 보고에 이어 부의의안으로 제1호 의안 2020년도 결산보고의 건으로 특별회계(잔액 372,564,317원) 와 일반 회계(잔액 87,411,319원)의 결산을 상정했다.

또한 제2호 의안으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 건으로 특별 예산 수입(9,500,000원)과 지출(모교 후배 장학금 4,500,000원), 일반 회계 수입(273,000,000원)과 지 출 예 산 안(273,000,000원)을 각각 상정했다.

87차총동문이사회가 서면으로 열리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이사회 모습.

참고로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안은 지난해 2120년에 비해 3천250만원이 줄어 든 금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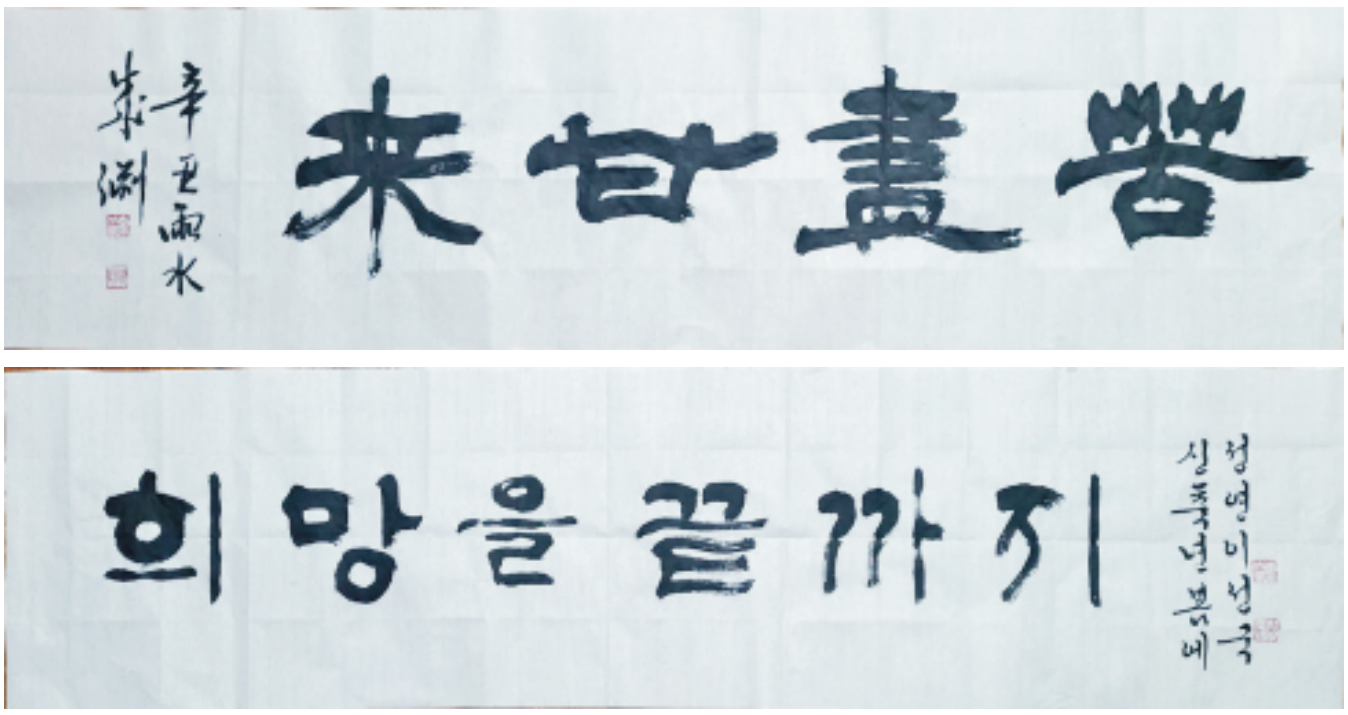
한편 매년 3월 정기총회 개최는 향후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추세인 만큼 당분간 비대면으로 총동문회 활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 신도성 편집위원 –

"구름 너머에 우리가 고대하는 푸른 하늘이 기다립니다"

〈신춘휘호〉 이성국 동문(15회. 서예가. 株SGI대표이사) 동문님들 건승 기원



신축년 올해도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 · 경칩절기가 돌아왔건만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설송 동문님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임 자제 및 사회적인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철저한 예방수칙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 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종식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듯합니다.

2월말경부터는 백신접종이 이루어져 차츰 확진자 수는 줄겠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는 현업에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충기동문님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버텨내어 준다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하게 극복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예방수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힘을 낸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희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동문님들께 격려가 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글을 휘호하여 마음의 위안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고진감래(苦盡甘來 : 괴로움이 다하고 즐거움이 다가옴)는 선조들이 국난을 당할 때마다 가슴에 새겨온 구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위기가 찾아 올 때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따라야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판이 되시기를 고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충기 동문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잘 극복해 오셨던것 처럼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던것 처럼요. 어쩌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수많은 과거로부터 이룩해낸 하나의 결과이니까요. 구름 너머에는 우리가 고대하는 푸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소 힘드시겠지만 "희망을 끝까지"놓지 않으시기를 기원하며 저의 고졸한 휘호를 동문님들께 바칩니다.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사무처 편집실 ☎(042)252-5656

“한 학생을 가르치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합니다”

〈이종업 교장 취임사〉 인성 갖춘 소통과 공감의 충남기계공고 만들터

안녕하세요! 모교인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발령받은 이종업입니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산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는 중부권에서 규모가 제일 큰 42학급에 1,000여 명의 학생과 160명의 교직원, 3만 4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60년에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명문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국적인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 기피 현상으로 학교에 많은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직업계고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산업인력 배출이라는 고유의 역할을 저버리고 취업이 불분명한 취미와 흥미 위주의 가사계열(네일아트,바리스타,제과제빵,조리,반려동물등)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국가적으로도 충남기계공업고의 변화와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모교의 교장으로 학생을 위하고 교직원들을 도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한 학생을 가르치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못 할 학생은 없다는 신조로 존중해주고 넉넉하게 나눌 줄 아는 아름다운 심성을 가진 학생,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성으로 가르치는 교원, 지역사회와 학부모,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충남기계공고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동문님들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

가 다 같이 협력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르고 창의적인 기술 인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역량과 인성을 갖춘 기술인재 육성> <학생, 학부모, 교사, 산업체, 모교 동문에 매력 있는 학교> <소통과 공감의 배움 공동체> <항상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위 교육목표 달성에 매진하여, 우리학교 졸업생들이 양질의 직업군(고임금, 좋은 환경, 장래성)에 더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후배 동문여러분께서 우리 모교가 다시 도약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아무쪼록 코로나시기에 충기교육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이 종 업 올림

〈화보〉 이종업 교장 모교 재학생부터 현재까지

모교 3학년 8반 졸업앨범 사진

14회 동기들과 2014년 송년의 밤

총동문체육대회 참가

체육대회에서 동기들과 담소

총동문체육대회를 마치고

14회 졸업40주년기념행사 감사패 받아

14회 졸업40주년기념행사 은사님을 모시고

대전공고 교장 재임 시절

“흰 소의 뚝심으로 전국고교동창골프 우승컵 쟁취 도전”

모교동문골프팀 2021키움증권배전국고교동참골프 3월 8일 예선전 출전

전국고교동창골프대회 명예의 전당에 오른 학교이름들이 부럽기만 하다.

총동문회 골프팀(단장 전종현)은 3월 8일(월요일) 경북 상주블루원 CC에서 열린 2021 키움증권배 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예선에 출전한다. 지난해 우승팀 김천 성의고에게 통합준결승에서 석패하여 3위에 그친바 있다. 17회를 맞는 올해 대회에는 재작년에 전열을 정비하여 출전한 김경훈(31회) 선수가 다시 합류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개최가 불투명한 가운데 열린 제16회 키움증권배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에서 모교팀은 재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출전하여 전종현 단장의 헌신아래 허영준 주장과 차서백, 이문휘 선수의 활약으로 괄목할 성적을 거두었다. 올해 대회는 심기일전하여 사업관계로 빠진 차서백 선수 대신 김경훈 선수가 컴백했다.

모교 골프팀은 재작년 고교동창골프대회에 출전하여 하반기대회 8강까지 올랐고, 지난해 상반기 대회에 출전하여 통합 4강에 오르는 성적을 거뒀다. 모교팀은 전종현 단장(12회)의 집념 아래 똘똘 뭉쳐 주장 허영준(25회)선수의 결정적인 활약과 ‘행운의 사나이’이문휘(27회) 선수의 선전이 돋보였다.

2004년 첫 방송 이래 올해 17회째를 맞이하는 고교동창골프최강전은 모교의 명예를 건 팀 대항전으로서 고교 동문 간의 화합과 승부를 그린 SBS골프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으로 소문이 나 있다. 올해 대회에도 전국 150 여개의 고등학교 동문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모교 동문골프팀은 3월 8일 예선을 앞두고 각자 개인 연습에 이어

지난해 연습경기 도중 이문휘 선수가 홀인원을 기록하여 사기를 올렸다.

3월 6, 7일 상주블루원CC에서 라운딩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허영준 주장은 “동문들의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해 경험을 살려 방심하지 않고 경기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종현 단장은 “충기인의 명예를 걸고 우승할 때 까지 도전하겠다” 며 “신축년 행운의 흰 소의 기운을 받아 우승컵을 가져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도성 편집위원–

“부부란 사랑으로 포장된 고도의 비즈니스 관계”

〈동문 칼럼〉 평생 동행 비결 무리한 요구보다 용서와 포용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그리고 상대가 끌려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부부의 일상이다. 하지만 살다보면 갈등도 생기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혼의 파국을 맞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부부가 비록 순간적인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하면 서로 용서와 포용으로 함께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데, 과연 그 비결은 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커플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결혼을 하고, 동시에 수많은 커플들은 그들의 사랑에 종지부를 찍는다. 이혼율 세계 1위인 미국에서는 이혼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의 이혼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 효과의 진위여부를 떠나 어떻든 미국의 이혼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이혼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의 80%는 협의이혼이다.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에 걸리는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는다. 법은 과연 어느 선까지 부부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혼시대,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혼 하지 않고 평생 잘 사는 비결은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고 집착보다는 상대의 자유를 허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즉, 부부관계가 무겁지 않아야 한다.

어찌 보면 저런 방법이 쉬울 듯 보여도 현실에 다가서면 그리 쉽지가 않다. 거의 대부분의 부부는 상대가 자신에게 맞추어 주기를 기대하며, 늘 뭔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난 변호사로서 이혼 소송 등 가정법률 문제를 다룰 때 의뢰인에게 저런 방법을 이야기해주며 화해를 권고한 적이 많았는데, 소수의 의뢰인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다시금 다정스런 부부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은 갈등의 폭이 이미 깊어서 끝내는 파국을 맞이했다.

어차피 살아야 할 인생이고 인생은 행복해야 하므로, 또한 홀로 사는 것보다는 둘이 더 좋으므로, 부디 서로 용서와 포용으로 감싸 안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해본다. ‘부부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고도의 비즈니스’이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요구보다는 지혜와 따뜻함으로 무장된 베풂이 첫째’라는 말을 기억해달라고 이혼 직전의 부부에게 충고해주고 싶다. 나이든 어르신들이 볼 때 인생살이는 뭐 특별한 게 없다. 그저 위해주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봉사하는 자세로 살면 이혼하지 않고 오래 오래 징하게 살아간다는 말씀이다.

백홍기(16회. 대전로펌보담 대표변호사)

“모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향, 후배들이 성공하길 바라”

기룡전기 매년 모교에 장학금 2021학년도 1천만원 전달

이중선 기룡전기 대표이사가 25일 모교 교장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룡전기는 괄목할 발전으로 중부권 굴지의 전기시공업체로 성장하고 있다.

기룡전기는 해마다 이중선(36회) 대표이사가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여 현재까지 5천만원을 기부했다. 기룡전기는 이중선 대표가 선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2대째 전기공사를 담당하며 발전한 회사이다.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기룡전기에는 선후배 동문들이 많다.

모교 3회 이우정 회장과 서한수 부회장을 비롯하여 2회 선배부터 51회 후배까지 21명의 동문이 근무하고 있다.

기룡전기 동문들은 모교 총동문 체육대회를 비롯해 모교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열리지 못해 총동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해 총동문회에 보내온 바 있다,

기룡전기에는 현재 2회 오상진(자동차과) 선배부터, 3회 이우정(전기과) 서한수(광산과) 오선웅(광산과), 7회 민병학(전기과), 8회 이재범(전기과) 이돈섭(광산과) 이현두(전기과), 11회 황인호(전기과), 13회 강현용(기계과), 신상우(기계과), 15회 이정원(전기과), 23회 이남희(전기과), 28회 변영환(기계과), 37회 유용주(기계과), 43회 전알렉산더(전자기계과), 51회 손홍구(산업설비과) 동문이 있다. 이중선 기룡전기 대표이사는 “모교는 평생의 잊을수 없는 고향”이라며 “모교 후배들이 실력을 쌓아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없다…투명성이 최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월 26일 접종시작 · 화이자 백신은 27일부터

보건당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입각해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 거부와 같은 움직임이 있을 경우에는 정치인과 같은 사회 저명인사, 보건의료인 등이 우선 접종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22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과 영국,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긴급사용을 허용한 안전한 백신”이라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은 의무접종 대상이 아닌 만큼, 백신 접종 거부 후 확진이 되더라도 구상권 청구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의료 종사자, 입원환자, 일반 국민 모두 동의 하에 진행된다. 백신 접종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입각해 진행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백신 접종 거부 우려에 대해서는 “만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면, 사회 저명인사를 비롯 보건의료인들이 우선 접종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약 75만 명이 접종 할 수 있다.

백신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천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25일까지는 울릉도 보건소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배송된다. 울릉도는 26일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은 배송 후 5일 내 1차 접종, 8주 후 2차 접종 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화이자 백신(코백스 계약 물량) 5만 8000명 분은 27일부터 의료인 약 5만 5000명에게 접종을 시작한다.

화이자 백신은 중앙 및 각 권역별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실시한다. 다만 의료 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접종 대상자가 120명이 넘는 감염병 전담병원은 센터 접종이 아닌, 자체 접종하게 된다.

<언론 기사 발췌>

“행복의 비밀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 충기에서 행복했어요”

〈황의만 교장 퇴임사〉 대전에서 제일 큰 학교에서 마무리 진심으로 감사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1일 자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 외부에서 축하받는 자리에서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큰 학교 교장이라 얼마나 힘드냐”고 걱정해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 인사를 처음 들었던 날 “학교가 너무 커서 신경 쓸 일은 많지만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 덕분에 걱정할 일은 전혀 없다”고 대답했는데, 참석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그러냐”고 하면서 감동하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인사를 들으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왔습니다.

대전에서 제일 큰 학교, 그래서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교번 1번 학교에서 선생님들 덕분에 걱정 없이, 탈 없이 교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겠지만 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좋아하는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행복의 비밀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앤드류 매투스) 선생님들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고 그동안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교직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문님들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교육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황의만 교장과 김대식 교감 등 퇴임식이 시청각실에서 19일 조촐하게 열렸다.

이우정 총동문회고문이 25일 황의만 교장에게 총동문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임교장에 이종업 대전공고교장 발령

모교 교원인사 22명 전입, 13명 전출 6명 퇴직

이종업 대전공고 교장(모교 14회 동문)이 모교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대전시교육청 올 상반기(3월 1일자) 교원 인사발령에 따라 모교 교감에는 정흥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감이 부임한다.

이번 인사로 모교에서는 13명의 교사가 전출되었고, 22명의 교사가 전입되었다. 또한 황의만 교장과 김대식 교감, 김무성・명경호・장시영・장문규 교사가 퇴임했다.

평생을 교직에 봉사하다 모교에서 퇴임한 교사들을 위해 모교 시청각실에서 2월 19일 조촐하게 퇴임식을 가졌다.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고침기사 본보 제251호 6면 56회 졸업식 기사 중 “56회 344명의 졸업생으로 모교 졸업생은 모두 33,999명”이라는 기사는 “34,023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중학생 때 영화 보고 감동, 교직 꿈꿔”

〈황의만 교장 소회〉 지리산 등 다섯 학교 인생 드라마

내가 교직에 뜻을 품게 된 건 중학교 1학년 때 월례고사를 치르고 단체로 영화관람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중학교 3년 동안 많은 명화를 보게 되었는데, 신성일과 윤정희가 주연한 ‘작은 꿈이 꽃 필 때’를보고 많은 감동을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직을 동경하게 되었다. 섬마을 국민학교에 발령받은 남・녀 교사가 낮에는 한 칸짜리 교실에서 복식수업을 하며 전교생을 가르치고, 밤에는 동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선생님이 ‘학교’라고 읽으면 노인들(김희갑 등)은 ‘핵교’라고 따라 하던 장면과 특히 말썽꾸러기 학생에게 “선생님이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 내 잘못이다”라며 종아리를 걷고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던 신성일의 모습은 가슴속에 똬리를 틀고 앉아 교직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영향을 끼쳤고, 그렇게 선택한 교직이 벌써 38년이 흘러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1983년 경남 함양에 있는 지리산 골짜기의 벽지학교-함양중학교 휴천분교장(場)에 신규 발령을 받아 영화처럼 ‘작은 꿈이 꽃필 때’를 흉내 내며 순박한 시골 아이들과 함께 교직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첫 발령지는 지리산 골짜기에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만 뻥 뚫린 그런 학교였는데, 고향(대전)에 다녀오려면 차를 열 번을 타야 했다. (갈 때 여섯 번, 돌아올 때 네 번) 교사 2년 차 여름, 지리산 골짜기에 대홍수가 나서 학교 앞, 위, 아래 다리 세 개가 떠내려갔고 윗동네 사람 14명이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3일 동안 교통, 전기, 전화가 불통이 되는 지옥을 경험했던 기억이 38년 중 가장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평교사로 재직한 25년 동안의 다섯 학교 중에 1, 3, 5가 신설학교(함양중휴천분교장, 울산양정중, 대전공고)였다. 평생 재직하는 동안 신설학교에 한 번 근무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3/5을 신설학교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많이 힘들어했었지만 마무리하며 뒤돌아보면 정말 운이 좋지 않고는 그런 발령이 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누군가 나를 보살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누군가의 보살핌이 38년 동안 이어진 덕분에 대전의 명문고, 중부권 직업계 고등학교의 명문, 대전의 교번 1번 학교에서, 비공식 표현이지만 대교장 소리를 들으며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명예롭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건 대전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2021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제1경기장 기반공사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교직원과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어 안타까웠는데 새롭게 변모되는 모습을 보며 위안 삼을 수 있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처음 겪어보는 학사일정을 운영하며 조마조마한 상황을 몇 차례 맞이했지만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모든 교육가족이 적극 협조해주고 응원해준 덕분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1월 27 ~ 2021년 2월 24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방	1	강필규	20,000	전	5	김재식	20,000	기	11	조준영	20,000	전	16	김희곤	20,000	전	24	김용석	20,000
상	1	김재찬	20,000	방	5	윤대진	100,000	전	11	조한수	50,000	기	16	박대용	100,000	기	24	박종호	50,000
자	1	민승기	20,000	전	5	이인성	20,000	전	11	황인호	20,000	기	16	서재갑	50,000	기	24	홍재표	20,000
방	1	박성재	20,000	전	5	장정태	20,000	기	12	강영수	20,000	기	16	송상호	20,000	전	25	신장식	20,000
자	1	윤영호	20,000	자	5	한상덕	20,000	기	12	강희창	100,000	기	16	윤석길	20,000	기	27	권오석	20,000
광	1	이기선	20,000	전	6	강병섭	50,000	기	12	공재하	20,000	기	16	이계천	20,000	금	27	김장환	20,000
자	1	이창우	20,000	자	6	김기영	20,000	기	12	노수광	20,000	기	16	이언구	50,000	기	28	윤수원	20,000
자	1	이형모	20,000	방	6	김대련	20,000	기	12	라기원	100,000	기	16	이재흥	20,000	기	31	권오진	20,000
자	1	조관현	20,000	자	6	김태관	20,000	자	12	민병기	20,000	배	16	임재록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상	1	한정선	20,000	전	6	유동균	50,000	전	12	박찬웅	20,000	전	16	장보환	20,000	기	39	박종규	20,000
광	2	신황덕	20,000	전	6	유동환	20,000	광	12	송진만	20,000	전	16	차재홍	50,000	전자	51	박지호	20,000
자	2	오상진	20,000	전	6	황재현	20,000	기	12	오승수	20,000	기	16	최현주	20,000	설비	51	한찬혁	20,000
자	2	유병환	20,000	방	7	강명석	50,000	기	12	이승범	20,000	기	16	황선영	20,000			무기명	80,000
방	2	이동영	20,000	전	7	강석근	20,000	기	12	정찬목	20,000	기	17	강대기	20,000				
자	2	임평근	50,000	전	7	김상구	20,000	기	13	강민형	20,000	기	17	김택균	20,000				
방	2	최병주	50,000	방	7	오예진	20,000	기	13	권은순	100,000	전	17	서용덕	20,000				
광	3	강원규	20,000	광	7	이상선	20,000	기	13	김천수	20,000	기	17	양희곤	100,000				
광	3	김영복	20,000	전	7	이은상	20,000	기	13	김태근	20,000	기	17	윤영문	20,000				
전	3	민철기	20,000	전	7	이희배	20,000	화	13	박익환	100,000	기	17	이대연	20,000				
전	3	박광수	20,000	자	7	조봉호	20,000	기	13	송치경	20,000	전	17	임한모	20,000				
광	3	박상철	20,000	전	8	백동현	20,000	전	13	이일섭	20,000	기	17	정왕규	50,000				
전	3	송의석	20,000	자	8	복영규	20,000	기	13	이형기	20,000	기	17	현정배	20,000				
방	3	연락바람	20,000	전	8	손월호	20,000	기	13	정진국	20,000	기	18	신기현	20,000				
방	3	윤백현	20,000	전	8	송홍섭	200,000	기	13	최성덕	20,000	기	18	유선동	100,000				
전	3	윤여숭	50,000	기	8	신도성	20,000	기	14	김병갑	20,000	기	18	이은성	20,000				
자	3	이기복	30,000	전	8	이종국	20,000	기	14	노영상	20,000	전	18	이주헌	20,000				
광	3	이기준	20,000	전	8	이종천	50,000	기	14	박수범	20,000	기	19	양승주	20,000				
자	3	이만근	20,000	전	8	임헌표	50,000	화	14	백낙두	20,000	기	19	이재원	20,000				
전	3	이봉원	20,000	자	8	정기원	20,000	기	14	송수헌	50,000	전	20	김양환	20,000				
전	3	이우정	20,000	자	9	김시절	20,000	기	14	이종업	100,000	기	21	김용근	40,000				
광	3	이재명	20,000	전	9	김창섭	20,000	기	14	이황훈	50,000	전	21	남궁만	20,000				
전	4	권수복	20,000	광	9	서종남	20,000	기	14	임헌장	20,000	전	21	오원석	20,000				
광	4	금기붕	20,000	기	9	양 희	20,000	기	14	임화섭	100,000	기	21	이상구	20,000				
방	4	김상백	50,000	전	9	오옥균	20,000	기	14	진인기	20,000	기	21	이호정	20,000				
자	4	김성식	20,000	전	9	윤영선	20,000	기	14	최영민	20,000	기	21	임현철	20,000				
전	4	김영환	50,000	전	9	이도한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1	조정관	20,000				
전	4	라상원	20,000	전	9	이선기	30,000	기	14	황태연	20,000	기	22	정연근	20,000				
전	4	박상규	20,000	전	9	조부춘	20,000	기	14	이성준	20,000	기	22	이영우	50,000				
전	4	박재훈	20,000	전	10	김병락	20,000	기	15	박 현	20,000	기	22	이희국	50,000				
전	4	박주국	20,000	전	10	김생환	120,000	기	15	배진구	20,000	기	23	강전영	50,000				
방	4	서종원	20,000	전	10	김용대	20,000	기	15	서경원	20,000	기	23	김대동	20,000				
자	4	윤광열	20,000	전	10	김철진	20,000	기	15	이중재	20,000	기	23	김복호	20,000				
자	4	윤재원	20,000	전	10	양승현	50,000	기	15	최병필	20,000	기	23	김영호	20,000				
전	4	이강주	20,000	전	10	오창균	20,000	기	16	강경구	20,000	기	23	이봉준	20,000				
전	4	이승원	20,000	광	10	윤여갑	20,000	전	16	권오준	100,000	기	23	이한희	50,000				
광	4	이장래	20,000	자	11	강재구	20,000	기	16	김기수	50,000	기	23	임병군	30,000				
광	4	장희석	20,000	화	11	박대범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기	23	조한범	100,000				
자	4	황완수	20,000	자	11	양준전	20,000	기	16	김정기	20,000	전	23	차주삼	20,000				

전기과 7회 동문 연회비

전	7	김영금	20,000
전	7	김용달	20,000
전	7	문제대	20,000
전	7	송인범	20,000
전	7	우창석	20,000
전	7	유중조	20,000
전	7	윤석천	20,000
전	7	윤용길	20,000
전	7	이재원	20,000
전	7	이종욱	20,000
전	7	임경선	20,000
전	7	전호필	20,000
전	7	정하연	20,000
전	7	조정현	20,000
전	7	천강춘	20,000
전	7	한인수	20,000
전	7	황규학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금	18	유병각	50,000
기	18	장영옥	50,000

특별회계 장학금

기 16 박대용 2,000,000

〈고침〉
본보 제251호(1월) 7면 연회비 및 발전기금 '기 21회 김태호 10만원'을 '화 10회 김태호 10만원"으로 바로 잡습니다.

종합정비업
으뜸자동차공업사
자동차검사! 환경심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2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1500 FAX : (042) 282-1501 ,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전국 꽃배달써비스
미스터플라워
대표 이 용 선 (14회)
010- 4856-7192
대전시 중구 유천로18번길 35 (유천동) 중부종합상가 101호
T. 042) 582-8280 F. 042) 586-8280
농협 : 453026-56-126981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CROWN 크라운출장뷔페
대표 이희범 (동문협찬업체)
결혼식/각종연회/칵테일파티/기업체행사/운동회 및 각종모임/바베큐/생맥주 파티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 528번지
전화 : (042) 585-5500 휴대폰 : 010-5462-9919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샤 주문배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샤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KIA 기아자동차 남선대리점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동문이 되겠습니다."
카마스터 김 희 곤 (16회) 동문차량 전담

TEL : (042) 486-0042
H.P : 010-3300-5838
FAX : (042) 525-4878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 e 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스포츠의류 umbro
대전 롯데백화점 7층 매장
대표: 김재용(010-4623-5073)

〈김석래(16회 동문) 아들〉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동문회보 협찬광고 받습니다.
충기동문들이 애독하는 설송소식에 동문 기업의 협찬광고를 저렴하게 게재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동문회 운영에 연회비 납부가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정성이 소중합니다. 1년에 한번 내시는 연회비 2만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연회비 납부는 동문회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총동문회사무실 대표전화 ☎252-5656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충기 동문 여러분 힘내십시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옵니다."
- 총동문회 임원 일동 -